

# 與 “이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자본시장 선진화 ‘쟁걸음’

### 3차 상법 통과되자 대주주 부양 조치 회피 방지 입법 나서 디스커버리 제도·스튜어드십 확대 등 남은 개혁 과제 박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61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스피 6000 시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3차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당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의 보호를 핵심으로 삼았다”며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당정은 앞으로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우리 산업과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이 믿고 투자하며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25일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힌 바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오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세금의 기준이 평균 주가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 간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주식거래, 유상증자, 합병·분할 등의 수단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최대 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BR이 0.8 미만인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주주가 주식 자평가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해 정당한 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소수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기업들의 자

PBR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농지 투기 근절 입장으로 분명히 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 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

토를 지시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자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만7520원 이던 농지가 2025년에는 평균 4만2314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kjk2156@skyedaily.com

## 민주 차기 당대표, 정청래 21.6 vs 송영길 19.4 vs 김민석 18.8 ‘팽팽’

鄭·金 양자대결 27.2·26.7 ‘접전’  
40대 鄭대표·70대 金총리 우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3~24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세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는지 질문에 정청래 21.6%, 송영길 19.4%, 김민석 18.8%로 세 인물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연령대, 지역, 정치 성향의 모든 세부 응답층에서 세 인물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팽팽했다.

연령별로 보면 정 대표는 40대, 송 전 대표는 60대에서 우위를 보였다. 40대에



선 정청래 33.8%·송영길 21.4%·김민석 20.3%였다. 60대에선 송영길 28.7%·정청래 18.0%·김민석 18.0%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정청래 24.4%·김민석 20.6%·송영길 19.3%로 팽팽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송

영길 28.0%·정청래 27.9%·김민석 27.6%로 세 인물 간 격차가 미미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정청래 54.1%·송영길 14.6%·김민석 12.1%로 정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정 대표와 김 총리 간 양자대결에서는 각각 27.2%, 26.7%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성, 연령대, 지역, 정치 성향의 모든 세부 응답층에서도 두 인물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정 대표가 39.4%로 김 총리(29.0%)에 우위를 보였고, 70대 이상에선 김 총리가 26.2%로 정 대표(18.7%)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김 총리가 부산·울산·경남에서 32.0%로 정 대표(18.1%)에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정 대표가 64.4%로 김 총리(12.0%)에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면,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 4.9%p 상승한 63.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3%p 하락한 31.3%로 조사돼 금부정 격차는 32.0%p로, 지난 조사 21.8%p 대비 늘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2.8%p 상승한 48.1%, 국민의힘 3.8%p 하락한 28.1%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20.0%p로, 지난 조사 13.4%p 대비 격차가 늘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49.9%, ‘무죄 선고’를 받았어야 24.9%, ‘무기징역 판결이 합당’ 16.2%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강 기자kjk2156@skyedaily.com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화제의 신간

58세 신예 작가리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

##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 라라의 랩소디